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능력 조사연구

장 애 리
(이화여대)

1. 서론

소위 ‘문화능력’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명쾌한 개념을 떠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문화’라는 단어의 포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요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번역의 경우, “문화는 곧 커뮤니케이션”(Hall 2000: 141)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능력은 통번역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막상 머릿속에 맴도는 문화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개인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계기로 문화능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문화능력의 적용 분야를 통번역에 한정하여 관련 선행 및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장애리 2011). 하지만 관련 문헌에 기초한 이론연구는 여전히 추상적이며 주관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통해 앞서 이론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지 검증하고 더불어 실무차원에서 문화능력이 어떻게 반영 및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론 차원의 논의를 넘어 실증적 차원에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실제 통번역 현장에서 문화능력이 어떤 실행적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문화능력 이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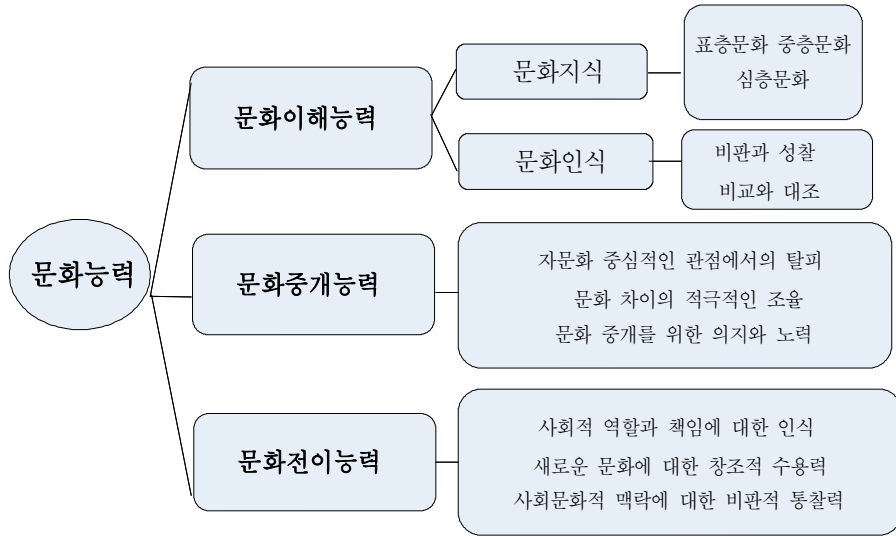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이론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¹⁾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통번역학을 비롯해 통번역과 언어 및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 외국어교육 그리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문화능력 선행연구²⁾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³⁾를 통해 통번역 관점에서의 문화를 ‘의사소통의 대상(텍스트)’, ‘주체(참여자)’, ‘결과(사회)’의 층위로 분석하여 문화능력의 개념을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으로 구성된 총합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론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화이해능력은 통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의 표층(언어)과 심층(맥락)

- 1) 본 논문에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는 구별된 의미로 사용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능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면, 문헌연구에서는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의 내용을 새롭게 정립하고 구체화하였다. 선행과 문헌연구의 합을 본 논문에서는 이론연구라 칭한다.
- 2) 문화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번역분야의 경우 김효중(2004), 비테(Witte 1994, 1996), 노이베르트(Neubert 2000), 샤프너(Schäffner and Adab 2000)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분야는 팬티니(Fantini 2005), 민창기(2006) 등의 연구를, 외국어 교육 분야는 이정민(2009), 나카가와 마사오미와 위햇님(2010), 마키노 세이이치(2003, 정혜경 2005 재인용) 등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 3) 문헌연구에서는 정호정(2008), 하탐(Hatim 2010), 나이다(Nida 1964), 김효중(2004), 케이탄(Katan 1999), Bahadir(2004), 유수연(2008), 베누티(Venuti 2006), 허만스(Hermans 2000, 2009), 노르트(Nord 2006), 강주현 외(2006) 등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을 결합한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출발과 도착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해의 대상인 문화지식(cultural knowledge)과 이해의 방법인 문화인식(cultural awareness)으로 구성된다. 문화지식은 다시 가시적으로 관찰되는 문화적 산물인 표층문화, 사회 및 언어적 규범인 중층문화, 가치관과 정신문화로서의 심층문화로 구성된다. 문화인식의 경우 비교와 대조 그리고 비판과 통찰적 관점의 적극적인 문화 읽기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문화중개능력⁴⁾은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출발과 도착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상대적인 관점, 문화 차이의 적극적인 조율, 문화 중개를 위한 의지와 노력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문화전이능력⁵⁾은 통번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통번역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문화 간 게이트키퍼로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창조적 수용력으로 구성된다(장애리 2011).

- 4) 문화중개능력은 통번역사가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 차이를 중개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독일의 경우 의사소통 관습이 상이한데, 독일인은 업무와 개인적인 영역의 구분이 확실하여 비즈니스 협상 시 짧은 한답을 거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만, 한국인은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와 취미 등 개인적인 질문을 포함한 한답으로 우호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 협상이나 미팅 과정에서 한국인은 독일인이 인간미 없다 느껴질 수 있으며, 독일인은 한국인의 질문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문화를 잘 아는 통역사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능력이 문화중개능력이다. 번역의 경우 텍스트 차원의 문화중개 외에 상대국의 문화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 혹은 출판사와 번역작업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중개능력이 필요하다.
- 5) 문화중개능력이 통번역 '과정'에서의 문화중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전이능력은 통번역 결과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번역사가 발휘하는 문화능력이다. 예를 들어 과거 루쉰이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개혁과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문학을 번역하고, 경역(硬譯: 기계적 직역이 아니라 원문의 내용과 형태를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은 채 원작의 정신과 모습을 독자로 하여금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번역방법(조재룡 2009))을 통해 근대 중국어의 근간을 만들고 말과 글의 표현 방법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실은 번역사로서의 문화전이능력을 발휘한 사례라 하겠다.

〈그림 1〉 이론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2.2 연구 방법 및 절차

문화능력의 이론연구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2.2.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전문 통역사와 번역사는 뛰어난 통번역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통번역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 공신력 있는 협회⁶⁾ 등을 중심으로 통번역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통번역사 모집단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6) 현재 국내에는 통번역사와 관련된 협회로 (사단법인) 한국통번역사협회와 한국번역가 협회가 있으나 전자의 경우 2007년에 정식 설립되어 아직은 회원 수가 적고, 후자의 경우 설립 역사는 비교적 길지만 4000명이 넘는 다양한 수준의 번역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두 협회 모두 실질적으로 전문 통번역사 집단으로서 대표성을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판단표본추출방법⁷⁾을 사용하여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한영, 한일, 한중, 한불⁸⁾ 통번역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수학하는 통역사와 번역사를 본 조사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통번역대학원이 주로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대학원의 교수 및 강사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 통번역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박사과정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대부분 실무 통번역사로 활동하면서 통번역 관련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 통번역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문가이론(*expertise theory*)에 따르면 오랜 경험과 실천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뛰어난 수행성과를 보이는 사람, 해당 분야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 나아가 ‘대가(*master*)’로 정의하고 있다(Hoffman 1996).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외대와 이대 통역번역대학원은 설립 역사 및 통번역사 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통번역 교육기관으로, 두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서 통번역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2.2 조사도구의 개발

문화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 개발을 위해 앞서 진행한 문화능력에 대한 이론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의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⁹⁾하여 조사도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2차례 실시하여

- 7)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자의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표본 선정 방법으로 직접적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당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사전 지식을 전제로 표본을 선정할 경우 오히려 무작위표본 추출로 인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 선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광범위한 집단에 일반화 하지 않는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표본선정방법으로 사회과학 조사연구에서 널리 사용된다(채서일 1993: 349).
- 8) 한영, 한일, 한중, 한불 전공을 선택한 것은 전공자 수가 많고, 국내 통번역 시장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 9)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을 연구

통번역사들의 문화능력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문화능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의 내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통번역사의 문화능력과 관련하여 개발된 설문지가 없는 관계로 예비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문항의 구성방식과 난이도 등 설문지 형식 및 설계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내용 전문가 2인에게 조사도구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 받고, 통계기법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본조사에서 사용 할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사도구의 구체적인 문항(변수)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조사도구 문항구성

| 변수 | 하위 변수 | 세부 내용 | 문항번호 |
|-------|-----------|--|--------------|
| 독립 변수 | 개인 배경 | 성별, 연령, 최종 학력, 학부 전공, 제2언어국 체류기간 | 1-5 |
| | 활동 배경 | 활동분야, 통역유형, 통역분야, 번역유형, 번역분야, 활동유형, 활동경력, 통번역 언어, 통번역 방향 | 6-18 |
| 종속 변수 | 문화능력 개념인지 | 개념적 타당성 | 19-21 |
| | | 우선순위 | 22 |
| | 문화능력 실행수준 | 문화이해능력 | 23 (1-20) |
| | | 문화중개능력 | 24 (1-10) |
| | | 문화전이능력 | 25 (1-10) |

독립변수 중 개인배경은 조사 대상의 성별 및 연령, 학력 등 인적 사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문화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학부전공, 제2언

의 틀 안에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현실 세계의 현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채서일 1993: 195-199).

어국 체류기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활동배경은 조사 대상자의 통번역 활동 현황과 관련된 문항으로 주요 활동분야(통역, 번역, 통번역)와 통번역 주체, 프리랜서, 인하우스 등의 활동유형 등 전반적인 실무 관련 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중 문화능력 개념인지에 대한 문항은 연구자가 이론연구를 통해 수립한 문화능력 개념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지 검증하는 문항이다.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과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설계는 조사대상자가 각 문항에 진술되어 있는 문화능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읽고 제시된 용어 중 가장 근접한 용어를 선택하게 하여 개념적 정의와 각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 간의 상호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3가지 문화능력의 구성 개념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문화능력 실행수준에 대한 문항은 실제 통번역 현장에서 통번역사의 개인 및 활동 배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문화능력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도출한 문화능력의 구성요소들이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는지 검증하는 문항이다. 이론연구 및 예비조사 등의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에 대해 각각 20개, 10개, 10개의 세부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¹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설문지 참조).

2.2.3 본조사 실시

본조사는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의 교수와 강사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수학하는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인원은 외대 140명, 이대 102명으로 총 242명이다. 설문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My-surve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하였고, 개별 자기기입법에 의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월 16일 종료시점까지 개별 메일을 통해 242명에게 발송된 설문조사는 총

10)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것은 실행 및 이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문화능력의 특성상 보다 폭 넓은 측정 수준을 제공하여 응답이 '보통이다'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 더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123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응답 오류 등의 이유로 분석에 부적합한 14부의 설문지를 제거한 109부가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2.2.4 분석방법

본 조사연구는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추출하고 조사대상의 개인 및 활동 배경에 따라 문화능력의 인식과 실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12.0 한글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개인 및 활동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이 문화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 대상의 개인 및 활동 배경에 따라 문화능력의 개념 인지와 실행에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세부 문항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 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T/F 값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2.3 조사연구 결과

2.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 배경의 경우, 통번역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8.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은 30대~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통번역대학원 석사(70.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부전공은 언어계열(66.1%)이 가장 많았고 제2언어국 체류기간은 2~5년 미만(26.6%)이 가장 많았지만, 1~2년 미만(22.9%)과 5~10년(22%)도 적지 않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활동배경의 경우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통역사가 30.3%, 번역사가 23.9%, 통번역을 함께 수행하는 통번역사가 3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통역 유형의 경우 동시와 순차를 함께 하는 통역사(87.9%)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전문분야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통역을 수행하는 비중(8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을 함께 수행하는 통번역사의 경우 역시 동시와 순차를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통역 분야도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사의 경우 주요 번역 유형에서 비문학/실용과 문학 번역의 비중이 각각 50.0%과 30.8%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번역을 함께 수행하는 통번역사의 경우 비문학/실용의 비중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번역사의 경우, 번역분야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다(38.5%)는 답변이 가장 많긴 하나 문화/예술(26.9%)과 인문/사회(15.4)도 꽤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통번역사의 경우, 문학이나 문화/예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제/경영으로 응답한 비중이 12.2%이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의 활동 유형은 프리랜서(77.1%)가 가장 많았고 현재 실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¹¹⁾를 차지했다. 활동 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0년~15년 미만은 22%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통번역 언어는 전체 109명의 통번역사 중 한영 50.5%, 한일 21.1%, 한중 20.2%, 한불 8.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번역 방향에 있어서, 72.5%의 통번역사들이 A언어 혹은 B언어 중 한 방향으로만 통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통번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한 조사결과는 <부록 2> 참조).

2.3.2 문화능력의 실증적 추출

(1)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본 조사연구에서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타당성(validity)은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한다(성태제, 시기자 2006: 163).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타당성 분석은

11) 현재 통번역 교육에는 종사하지만 실무를 병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수 및 강사들에 대해서는 통계분석 과정에서 그들의 응답 내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통번역 수행 및 교육 경력은 본 조사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충분히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문화능력에 대한 이론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문항들이 문화능력의 개념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이며, 문화능력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추출하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의 기본 원리는 문항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로 묶어내며, 요인들 간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는지 검증하는 통계 방법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특성을 규명하고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해능력 20문항, 문화중개능력 10문항, 문화전이능력 10문항, 총 40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요인분석 기법은 주성분분석방식이며 요인들의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¹²⁾이 1보다 높은 값을 갖는 요인들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요인 공통성(communality)이 0.5이하인 변수는 사전에 제거하여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의 KMO 값은 .906,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는 40개 측정 변수에 대한 검정치가 2390.395일 때 유의확률 0.000으로 요인분석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요인분석 결과 내적 타당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이 확인 되었으며 총 40개의 측정 변수는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각각의 요인을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으로 명명하였다. 문화이해능력 요인은 요인분석을 통해 총 4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요인적재량¹⁴⁾은 0.895에서 0.570, 요인의 고유값

12)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s)은 각 요인이 얼마나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나타내주며 이 값이 큰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이 요인 추출의 기준이다. 1이상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줄 수 의미하며, 고유값이 1이하가 되면 1개의 요인이 1개의 변수에 해당하는 분산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변수집단으로서의 요인의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채서일 1993: 571-572).

13) KMO값과 Bartlett의 구형 검정값은 요인분석에서 여러 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증하는 통계값으로 일반적으로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의 의미가 높고, 0.5이하면 요인분석은 성립하지 않는다(이쌍규 외 2002: 245).

14) 요인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통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 이상이면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채서일 1993: 562).

은 10.162로 나타났다. 문화중개능력은 총 8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요인적재량 값은 0.878에서 0.802, 요인의 고유값은 2.871로 나타났다. 문화전이능력 요인은 총4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요인적재량 값은 0.848에서 0.628, 요인의 고유값은 3.839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분산의 설명력 비율은 70.301%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주는 요인까지를 선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상세한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3> 참조).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려는 것을 검사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가와 관련된 개념(성태제, 시기자 2006: 185)으로 동일한 측정 변수를 이용하여 재조사했을 때 시간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는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채서일 1992: 248)으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요인분석을 통과한 문화이해능력 16문항, 문화중개능력 2문항, 문화전이능력 6문항 총24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해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문화이해능력 .967, 문화중개능력 .620, 문화전이능력 .82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화전이능력 문항 중 25-5 문항, 25-10 문항 총 2문항이 제거되었다(상세한 신뢰도분석 결과는 <부록 4> 참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화능력의 구성개념인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을 실증적으로 추출하였다. 이제 각 능력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 능력이 문화능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이해능력과 문화중개능력(.392), 문화중

개능력과 문화전이능력(.248)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화 이해, 중개 그리고 전이능력이 상호 독립적인 능력이 아니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표 2〉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 간 상관관계분석.

| | 문화이해능력 | 문화전이능력 | 문화중개능력 |
|--------|--------|--------|--------|
| 문화이해능력 | 1 | | |
| 문화전이능력 | .164 | 1 | |
| 문화중개능력 | .392** | .248** |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문화 이해, 중개 그리고 전이능력이 상호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세 능력이 문화능력과 종속관계를 갖는지 확인함으로써 세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세 능력이 문화능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이해능력이 문화중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이해능력을 독립변수로 문화중개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이해능력($B=.393$, $t값=4.403$, 유의확률 .000)이 높을수록, 문화중개능력은 정(+)의 관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는 통번역사의 문화이해능력이 높아지면 문화중개능력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문화이해능력이 문화전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이해능력과 문화전이능력 간 관계는($B=.161$, $t값=.164$, 유의확률 .089) 통계적으로 회귀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이해능력이 문화전이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중개능력이 문화전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중개능력($B=.243$, $t값=2.647$, 유의확률 .009)이 높을수록, 문화전이능력은 정(+)의 관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정리하면 문화이해능력이 높아지면 문화중개능력이 높아지고, 문화중개능력이 높아지면 문화전이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이해능력은 문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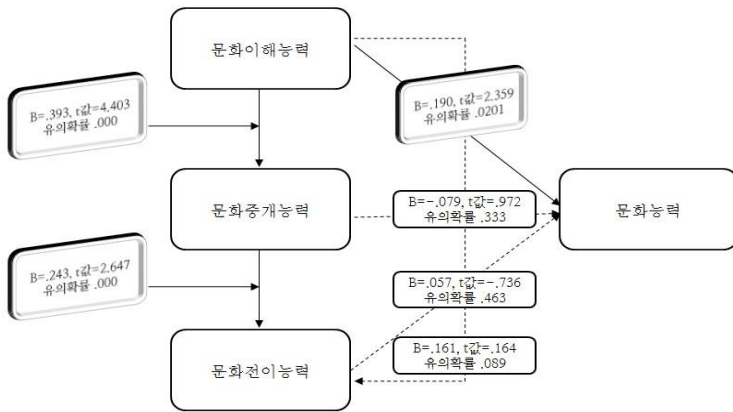
15) 유의확률 0.000($p<.05$)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했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15.3%이다.

16) 유의확률 0.009($p<.05$)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했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1%이다.

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이 문화능력이라는 하나의 총합적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능력을 독립변수로, 문화능력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¹⁷⁾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이해능력이 문화능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화 중개와 전이능력은 문화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의 단순회귀분석에서 문화이해능력이 문화중개능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문화중개능력이 문화전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문화능력을 구성하는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합적 능력으로 문화이해능력을 매개로 하나의 총합적 개념인 문화능력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계적 회귀모형으로 가설검정 한 결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2.3.3 통번역사의 개인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차이

T검정 및 분산분석 결과 나타난 통번역사의 개인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7) 유의확률 0.000($p < .05$)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했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5.6%이다.

〈표 3〉 통번역사의 개인 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차이

| 변수 | n | 개념인지 | | | 실행수준 | | | | |
|--------------|--------|--------|----------------|----------------|----------------|------------------|--------|------------------|------------------|
| | | 문화이해능력 | 문화중개능력 | 문화전이능력 | 문화이해능력 | 문화중개능력 | 문화전이능력 | 문화능력 | |
| 성별 | 여 | 96 | 1.88 (.015) | 1.97 (.048) | 1.80 (.007) | x | x | x | 1.1181 (.001) |
| | 남 | 13 | 1.62 (.015) | 1.85 (.048) | 1.46 (.007) | x | x | x | 1.3590 (.001) |
| 연령 | 30대 | 58 | x | x | 1.81 (.017) | x | x | x | 1.1149 (.015) |
| | 40대 | 41 | x | x | 1.78 (.017) | x | x | x | 1.1382 (.015) |
| | 50대 | 10 | x | x | 1.40 (.017) | x | x | x | 1.3667 (.015) |
| 학력 | 대졸 | 1 | x | 1.00 (.000) | 1.00 (.003) | x | x | 6.2500 (.003) | 1.6667 (.004) |
| | 일반 석사 | 5 | x | 1.80 (.000) | 1.20 (.003) | x | x | 4.6000 (.003) | 1.4667 (.004) |
| | 통대 석사 | 77 | x | 1.97 (.000) | 1.82 (.003) | x | x | 5.1136 (.003) | 1.1169 (.004) |
| | 박사 | 26 | x | 1.96 (.000) | 1.73 (.003) | x | x | 5.7885 (.003) | 1.1538 (.004) |
| 학부 전공 | 언어 | 72 | x | x | 1.78 (.012) | x | x | x | 1.1343 (.003) |
| | 사회 과학 | 7 | x | x | 2.00 (.012) | x | x | x | 1.0000 (.003) |
| | 인문 | 11 | x | x | 1.73 (.012) | x | x | x | 1.1818 (.003) |
| | 상경 | 6 | x | x | 1.33 (.012) | x | x | x | 1.5000 (.003) |
| B 언어 국 체류 기간 | 없음 | 14 | x | 2.00 (.031) | x | 4.9509 (.010) | x | x | 1.1667 (.049) |
| | 1-2 ↓ | 25 | x | 1.92 (.031) | x | 4.8700 (.010) | x | x | 1.2000 (.049) |
| | 2-5 ↓ | 29 | x | 2.00 (.031) | x | 5.3728 (.010) | x | x | 1.0805 (.049) |
| | 5-10 ↓ | 24 | x | 2.00 (.031) | x | 5.7578 (.010) | x | x | 1.0694 (.049) |
| | 10 ↑ | 17 | x | 1.82 (.031) | x | 5.4007 (.010) | x | x | 1.2745 (.049) |

*볼드체 숫자는 가장 높은 평균값, x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괄호 안 숫자는 유의확률(p<.05)을 의미한다.

통번역사의 개인 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개념인지 및 실행수준 차이를 살펴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통번역사가 여성에 비해 문화이해, 중개, 전이능력의 개념 인지에 대한 평균값이 일률적으로 낮은 반면 전체적인 문화능력의 실행은 반대로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

전이능력에 대한 개념 인지 평균값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능력의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번역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통번역의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통번역사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문화능력의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통번역사일수록 양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고, 실제적인 통번역 수행과정에서 문화 중개와 전이능력의 실행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의 경우, 문화 중개와 전이능력에 대한 개념 인지는 통대석사와 박사 출신 통번역사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문화전이능력의 경우 개념 인지율이 통대석사 출신이 박사보다 높은 반면, 실제적인 실행은 박사 출신 통번역사가 통대석사 출신 보다 훨씬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문화능력의 실행은 개념 인지율이 높은 통대석사와 박사 출신 통번역사보다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통번역사의 실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화능력의 개념 인지와 실행수준은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념을 인지했다 해서 실행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며, 실행수준이 높다고 해서 개념 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통번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무 위주의 작업을 수행하는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통번역사들은 실제 통번역 수행과정에서 문화능력의 실행 수준이 높지만 문화능력을 언표화하고 개념화하여 인식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부전공의 경우, 문화전이능력의 개념 인지에 있어서 학부에서 사회과학계열을 전공한 통번역사들의 인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문화능력의 실행은 통번역사들이 가장 많이 전공한 언어계열의 경우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례수가 언어계열에 편중되어 있고 기타 전공의 사례 수는 수적으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본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B언어 국가 체류기간의 경우, 문화중개능력에 대한 개념 인지에서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통번역사의 인지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출발 및 도착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체득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내재화 혹은 자동화 되어 있어 문화 중개의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체적인 문화능력의 실행 수준은 체류 기간 10년 이상의 통번역사들이 가장 높았다.

2.3.4 통번역사의 활동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차이

분산분석을 통해 나타난 통번역사의 활동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통번역사의 활동 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차이 분석 결과

| 변수 | n | 개념인지 | | | 실행수준 | | | | |
|--------|---------|--------|-----------------------|-----------------------|--------|-------------------------|--------|-------------------------|-------------------------|
| | | 문화이해능력 | 문화중개능력 | 문화진이능력 | 문화이해능력 | 문화중개능력 | 문화진이능력 | 문화능력 | |
| 활동 분야 | 통역 | 96 | x | 2.00 (.018) | x | x | x | 4.8712 (.035) | x |
| | 번역 | | x | 2.00 (.018) | x | x | x | 5.4135 (.035) | x |
| | 통번역 | 13 | x | 1.93 (.018) | x | x | x | 5.4756 (.035) | x |
| | 실무 x | | x | 1.78 (.018) | x | x | x | 5.2778 (.035) | x |
| 통역 유형 | 동시 | 2 | x | x | x | 5.4063 (.007) | x | x | x |
| | 순차 | 2 | x | x | x | 3.7500 (.007) | x | x | x |
| | 동시/순차 | 29 | x | x | x | 5.5388 (.007) | x | x | x |
| 번역 분야 | 문학 | 2 | x | 2.00 (.017) | x | x | x | x | x |
| | 비문학/실용 | 33 | x | 1.94 (.017) | x | x | x | x | x |
| | 영상/미디어 | 2 | x | 2.00 (.017) | x | x | x | x | x |
| 활동 유형 | 프리랜서 | 84 | x | x | x | 5.4256 (.018) | x | x | x |
| | 인하우스 | 15 | x | x | x | 4.9792 (.018) | x | x | x |
| | 실무x | 10 | x | x | x | 4.6438 (.018) | x | x | x |
| 활동 경력 | 5 ↓ | 11 | 1.73 (.010) | x | x | x | x | x | 1.1818 (.021) |
| | 5-10 ↓ | 50 | 1.82 (.010) | x | x | x | x | x | 1.1533 (.021) |
| | 10-15 ↓ | 24 | 2.00 (.010) | x | x | x | x | x | 1.0556 (.021) |
| | 15-20 ↓ | 11 | 2.00 (.010) | x | x | x | x | x | 1.0606 (.021) |
| | 20 ↑ | 13 | 1.62 (.010) | x | x | x | x | x | 1.3333 (.021) |
| 통번역 언어 | 한영 | 55 | x | x | x | x | x | 5.0318 (.007) | x |
| | 한불 | 9 | x | x | x | x | x | 6.0278 (.007) | x |

| | | | | | | | | |
|----|----|---|---|---|---|---|------------------|---|
| 한중 | 22 | x | x | x | x | x | 5.5795 (.007) | x |
| 한일 | 23 | x | x | x | x | x | 5.2065 (.007) | x |

통번역사의 활동배경에 따른 문화능력 개념인지 및 실행수준 차이를 보면, 활동분야의 경우 통역과 번역만을 수행하는 통역사 및 번역사가 통번역을 함께 수행하는 통번역사보다 문화중개능력에 대한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전이능력의 실행은 통번역사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번역사와 통역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역사는 번역사와 통번역사에 비해 문화전이능력의 실행 평균값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유형의 경우, 동시와 순차 그리고 동시/순차 유형에 따라 문화이해능력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통역과 동시 및 순차통역을 함께 수행하는 통역사의 문화이해능력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순차통역만을 수행하는 통역사의 평균값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번역 분야의 경우, 문학과 영상/미디어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사가 비문학과 실용서를 번역하는 번역사보다 문화중개능력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학과 영상 미디어 번역사들이 비문학과 실용서를 번역하는 번역사보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고 중개하는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활동 유형의 경우, 프리랜서 통번역사가 인하우스 통번역사보다 출발과 도착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경력의 경우, 문화이해능력 개념 인지에 있어서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통번역사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문화능력의 실행 수준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번역사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 언어의 경우, 문화전이능력의 실행에 있어 한불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중, 한일, 한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논의

3.1 문화능력의 실증적 추출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조사연구를 통해 그동안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던 문화능력을 실증적으로 추출하였으며, 앞서 이론연구를 통해 주관적으로 정립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문화능력에 대한 실증적 추출을 위해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의 총 40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들은 제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지식과 문화인식으로 구성된 문화이해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앞서의 이론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문화중개능력의 경우, 요인분석 과정에서 총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신뢰도계수(0.620)도 세 가지 문화능력의 구성요소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문화중개능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보다는 그만큼 의견 차이가 컸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통번역사가 문화자문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 차이를 중개하는 것은 한편으론 소통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통번역사의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개입이 또 다른 차원의 의사소통 왜곡과 문화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문화중개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문화 차이의 적극적인 조율’과 ‘문화 중개를 위한 의지와 노력’ 등의 통번역사의 적극적 및 주관적 개입과 관련된 요소는 모두 제거되었으며 개방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문화 간 간극을 메우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문화중개능력의 본질적 요소로 추출되었다. 문화전이능력의 경우 문화 이해 및 중개능력에 비해 개념 인지율이 제일 낮았다. 이는 그만큼 새로운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통번역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통번역사 스스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요인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구성요소는 문화 간 게이트키퍼로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창조적 수용력’으로 사회 공익적 차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요소는 제거되었다.

또한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문화 이해, 중개, 전이능력은 정(+)의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능력이라는 하나의 총합적 개념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번역사들은 세 능력의 우선 순위에서 문화이해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실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역시 문화이해능력이 문화능력과 세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문화이해가 이루어져야 이를 기반으로 문화중개가 가능하며, 문화중개가 가능하다면 문화전이의 가능성도 열리게 되므로 문화이해능력이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연구결과이다.

3.2 문화능력 실행 차원의 특징

통번역사의 개인 및 활동배경에 따라 나타난 문화능력 실행 차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고, B언어국 체류기간이 길며, 경력이 많은 통번역사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문화능력 실행 수준을 보였다. 통번역 경험이 풍부하고, 양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베테랑 통번역사들의 문화능력 실행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문화능력이 통번역 전문가 나아가 대가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둘째, 통역사의 문화전이능력 실행수준이 번역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번역을 통한 문화 전이의 과정에서 번역사는 번역서의 선정이나 번역 전략의 선택 등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통역의 경우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수동성의 한계, 시공간적 제약 및 기록으로 보존되지 않는 구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등으로 인해 위 조사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해석된다. 셋째, 박사출신 통번역사들의 문화전이능력 실행 수준이 일반대학원 및 통대 석사 출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번역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통번역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라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번역 석사과정에서의 통번역 이론교육은 통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통번역사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통번역 언어와 문화전이능력의 실행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문화전이능력은 한불, 한중,

한일, 한영 순으로 실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발과 도착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 빈도와 친숙함에 따라 통번역사가 문화 간 게이트키퍼로서의 능동성 및 문화 전이를 위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교류가 빈번하고 친숙하면 통번역을 통한 문화전이의 필요성 자체가 적어지지만, 반대의 경우 통번역사는 문화 전이과정에서 언어 및 문화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프리랜서 통번역사의 출발 및 도착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인하우스 통번역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랜서 통번역사의 경우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을 수행하는 만큼 양 문화를 비교적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반면, 인하우스 통번역사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통번역을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에 전반적인 양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조사연구를 통해 그동안 통번역 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던 문화능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추출하였으며 실제 통번역 수행 과정에서 문화능력이 어떠한 실행적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본 조사연구의 표본은 판단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집단으로서 연구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총 109명의 전문통번역사의 문화능력에 대한 개념 인지 및 실행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된 실증적 연구결과는 향후 문화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통역과 번역을 통합하여 문화능력을 규명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통역과 번역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상호 의사소통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문화능력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역과 번역의 유형 및 분야에 따라 문화능력을 세분화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적합한 문화능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외에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개인 및 활동 배경에 따른 문화능력의 개념인지 및 실행 차이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주현 · 권남희 · 김춘미 · 송병선 · 이종인 · 최정수 (2006) 『번역은 내 운명』, 서울: 즐거운 상상.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나카가와 마사오미, 위헛님 (2010) 「한국어교육에서 ACTFL-OPI의 활용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37: 283-311.
- 민창기 (2006)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능력의 개념과 구성」, 『관광학연구』 30(6): 51-71.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유수연 (2008)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다문화 시대의 소통방법』, 서울: 한국문화사.
- 이쌍규 · 이재모 · 이선영 · 김성애 (2002) 『SPSS를 활용한 조사방법론』, 서울: 삼우사.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New York: Routledge.)
- 장애리 (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169-202.
- 정연일, 주진국 옮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Christiane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1997. Manchester: St. Jerome.)
- 정혜경 (2005) 「文化能力의 教育과 評價를 위한 提案」, 『일본학보』 제64호: 217-232.
- 정호정 (2008)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조재룡 (2009) 「동서양의 문화 번역론 비교 연구-루쉰(魯迅)과 베르만 (A.Berman), 베르만과 루쉰」, 『비교문학』 제48집: 5-30.
- 채서일 (1993) 『사회과학 조사방법론』2판, 서울: 학현사.
- 최효선 옮김 (2000) 『침묵의 언어』. 서울: 한길사. (Edward T. Hall. *The Silent*

- Language*, 1973. Oxford: Anchor.)
- Bahadir, Sebnem (2004) 'Moving in Between: The Interpreter as Ethnographer and the Interpreting-Researcher as Anthropologist', *Meta* 49(4): 805-821.
- Hermans, Theo (2000) 'Translation's Representations', In Xie, T. (ed), *Construction of Translation from a Cultural Perspective*,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1-20.
- (2009) 'Translation, Ethics, Politics', In Munday, Jeremy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93-105.
- Hoffman, Robert R (1996) 'How Can Expertise be Defined? Implications of Research From Cognitive Psychology', In Williams, W. Faulkner and J. Fleck. Edinburgh (eds), *Exploring Expertise*, Scotland: University of Edinburgh Press, 81-100.
- Ivanova, Adelina (1999) *Discourse Processing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An Expertise Approach*,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 Katan, David (1999)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 Moser-Mercer, Barbara (2000) 'Searching to Define Expertise in Interpreting', In Hyltenstam, K. and Englund-Dimitrova, B (eds), *Language Processing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107-132.
- Neubert, Albrecht (2000) 'Competence in Language, in Languages, and in Translation', In Schäffner. C. and Adab (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18.
- Nida, Eugene Albert (1964)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Problems', In Hymes, Dell H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 Row, 90-100.
- Schäffner, Christina (2003)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tudies in Communication Sciences* 3(2): 79-107.

Schäffner, Christina and Adab, Beverly (2000)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Witte, Heidrun (1994) 'Translation as a Mea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In Dollerup, C. and Lindegaard, A.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Insights, Aims, Visions* : Papers From the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Elsinore, Denmark, June 1993, Amsterdam: John Benjamins, 69-75.

——— (1996) 'Contrastive Culture Learning in Translator Training', In Dollerup, C. and Appel, V.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3 New Horizons: Papers From the Third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Elsinore, Denmark, June 1995,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73-79.

전자문헌:

Fantini, A. E. (2005)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 Construct', *SIT Occasional Papers Series*. Revised 10.15.2005.

http://www.sit.edu/SITOccasionalPapers/feil_appendix_e.pdf

강의자료:

Hatim, Bail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초청 박사과정특강 발표자료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통번역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번역사의 '문화능력'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으로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분석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 문항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설문조사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본 설문지의 응답 기한은 **3월 16일(수요일)**까지입니다.

2011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장애리

I. 선생님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개인 응답에 관한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되는 곳을 클릭하거나 빈 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문항1]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 여성 남성

[문항2] 선생님의 연령을 선택해 주십시오.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이상

[문항3] 선생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대졸 일반대학원 석사 통역번역대학원 석사 박사

[문항4] 선생님의 대학 학부 전공을 적어 주십시오. (학과)

[문항5] 선생님의 제2언어 국가 체류기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없음 1-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II. 선생님의 활동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을 클릭하거나 빈 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선생님께서 ‘주요’ 활동하는 비중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본 설문에서의 ‘주요’는 본인의 활동에서 평균 70~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문항6]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통역(7번에서 8번까지 응답) 번역(9번에서 10번까지 응답)
 통번역(11번에서 14번까지 응답) 현재 통번역 실무 안함

● 통역 응답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7] 선생님의 통역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동시 순차 동시/순차 지역사회 통역(의료, 법정 등)
- [문항8] 선생님의 통역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경제, 산업 외교, 안보 환경, 사회 IT, 과학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 번역 응답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9] 선생님의 번역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학 비문학, 실용 영상, 미디어 웹 현지화 번역 기타(기재할 것 :)
- [문항10] 선생님의 번역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문화,예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기타(기재할 것 :)

● 통번역 응답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11] 선생님의 통역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동시
- 순차
- 동시/순차
- 지역사회 통역(의료, 법정 등)

[문항12] 선생님의 통역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경제, 산업
- 외교, 안보
- 환경, 사회
- IT, 과학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문항13] 선생님의 번역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문학
- 비문학, 실용
- 영상, 미디어
- 웹 현지화 번역
- 기타(기재할 것 :)

[문항14] 선생님의 번역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인문, 사회
- 경제, 경영
- 과학, 기술
- 문화, 예술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 기타(기재할 것 :)

[문항15] 선생님의 활동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프리랜서
- 특정 기관 혹은 기업 등에 소속된 인하우스 유형
- 현재 통번역 실무 안함

[문항16] 선생님의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이상-15년 미만
- 15년이상-20년 미만
- 20년 이상

[문항17] 선생님의 통번역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 한영
- 한중
- 한일
- 한불

[문항18] 선생님의 통번역 방향을 선택해 주십시오.

- A(모국어)→B(제2외국어)
- B(제2외국어)→A(모국어)
- 양방향 균등함

III. 다음 질문은 통번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번역사의 문화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문화능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진술된 개념에 가장 근접한 용어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묻는 질문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근접한 용어를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19]

“통번역 과정에서 언어와 맥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문화 지식을 통번역적 필요에 맞게 자기화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에 비추어 성찰적(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위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용어를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 잘 모르겠다
- 개념에 맞는 용어가 없다

[문항20]

“통번역을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 간에 간극을 메우고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문화 간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위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용어를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 잘 모르겠다
- 개념에 맞는 용어가 없다

[문항21]

“통번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

위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용어를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문화이해능력 문화중개능력 문화전이능력 잘 모르겠다
- 개념에 맞는 용어가 없다

[문항22] 아래 진술된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문화능력의 개념을 읽어 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 세 개념을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3순위()번.

1) “통번역 과정에서 언어와 맥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문화 지식을 통번역적 필요에 맞게 자기화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에 비추어 성찰적(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통번역사에게는 필요하다.”

(2) “통번역을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 간에 간극을 메우고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문화 간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통번역사에게는 필요하다.”

(3) “통번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능력이 통번역사에게는 필요하다.”

IV. 다음 질문은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양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23] | 세부질문 | 전혀 그렇지 않다<---보통--->매우 그렇다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1 | 양국의 지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2 | 구어와 문어, 말과 글 등으로 표현되는 양국의 언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3 | 양국의 최신 유행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4 | 양국의 결혼과 장례 등 의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5 | 양국의 음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6 | 양국의 주거 및 건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7 | 양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8 | 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9 | 양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0 | 양국의 사회적 관습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1 | 양국의 도덕 및 윤리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2 | 양국의 사회적인 가치판단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3 | 양국의 행위 규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4 | 양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5 | 양국의 종교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6 | 양국의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17 | 양국 구성원의 지각과 신념,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18 | 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번역적 필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 | | | | | |
| 19 | 양국 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텍스트와 연사의 발화에 나타난 문화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표현을 도출한다 | | | | | | | |
| 20 | 나는 통번역사로서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 | | | | | | |

V. 다음 질문은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중개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24] 세부 질문 | | 전혀 그렇지 않다<---보통--->매우 그렇다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1 | 통번역을 수행할 때 양 문화 간의 차이점에 대해 예민하게 감지하고 대처한다 | | | | | | | |
| 2 | 통번역을 수행할 때 문화 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혹은 협력의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다 | | | | | | | |
| 3 | 통번역을 수행할 때 양국의 문화에 대해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
| 4 | 통번역을 수행할 때 양국의 문화에 대해 상대적 및 개방적 관점을 갖는다 | | | | | | | |
| 5 | 통번역을 수행할 때 텍스트 혹은 연사의 말에 녹아 있는 문화적 배경을 자문화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경우도 있다 | | | | | | | |
| 6 | 통번역사로서 양국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편이다 | | | | | | | |
| 7 | 통번역을 수행할 때 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한다 | | | | | | | |
| 8 | 통번역을 수행할 때 문화 간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 | | | | | | | |

| | | | | | | | | | |
|----|--|--|--|--|--|--|--|--|--|
| | 생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 | | | | | | | |
| 9 | 통번역을 수행 할 때 양국 문화의 구성원들이 상대 국가와 문화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를 고려한다 | | | | | | | | |
| 10 |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화 자문을 제공한다. | | | | | | | | |

VI. 다음 질문은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전이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25] 세부 질문 | | 전혀 그렇지 않다<---보통--->매우 그렇다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1 | 통번역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통번역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 | | | | | | | |
| 2 | 통번역이 언어와 문화의 지평을 확대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3 | 통번역이 문화 간 교류를 촉진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
| 4 | 통번역을 수행할 때 통번역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 | | | | | | |
| 5 | 통번역을 통해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변용과 혁신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6 | 통번역과정에서 불균형한 문화 교류로 인해 일방적인 문화 수용 혹은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는 문화 간 교섭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 | | | | | |
| 7 | 나는 통번역 과정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게이트키퍼로서 비판적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8 | 나는 통번역이 자국과 상대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 | | | | | | | |

| | | | | | | | | | |
|----|--|--|--|--|--|--|--|--|--|
| | 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9 | 나는 통번역을 통한 문화 접촉의 과정에서 낯선 문화에 대한 창조적 수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10 | 통번역을 통해 한쪽 또는 양쪽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일어나는 문화전이의 과정에서 통번역사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VII. 통번역사의 문화능력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개진하고픈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빈 칸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문항26]

<부록2>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개인 배경

| 변수 | | 사례수 | 백분율(%) |
|------|--------------|-----|--------|
| 성별 | 여성 | 96 | 88.1 |
| | 남성 | 13 | 11.9 |
| | 합계 | 109 | 100.0 |
| 연령 | 30대 | 58 | 53.2 |
| | 40대 | 41 | 37.6 |
| | 50대 | 9 | 8.3 |
| | 60대 이상 | 1 | .9 |
| | 합계 | 109 | 100.0 |
| 최종학력 | 대졸 | 1 | .9 |
| | 일반대학원 석사 | 5 | 4.6 |
| | 통역번역대학원 석사 | 77 | 70.6 |
| | 박사 | 26 | 23.9 |
| | 합계 | 109 | 100.0 |
| 학부전공 | 언어계열 | 72 | 66.1 |
| | 사회과학계열 | 7 | 6.4 |
| | 인문계열 | 11 | 10.1 |
| | 상경계열 | 6 | 5.5 |
| | 기타 | 7 | 6.4 |
| | 법학계열 | 2 | 1.8 |
| | 이과계열 | 1 | .9 |
| | 공과계열 | 3 | 2.8 |
| | 합계 | 109 | 100.0 |
| 체류기간 | 없음 | 14 | 12.8 |
| | 1-2년 미만 | 25 | 22.9 |
| | 2년 이상-5년 미만 | 29 | 26.6 |
| | 5년 이상-10년 미만 | 24 | 22.0 |
| | 10년 이상 | 17 | 15.6 |
| | 합계 | 109 | 100.0 |

(2) 활동 배경

| | | 사례수 | 백분율(%) |
|--------------|----------------|-----|--------|
| 활동분야 | 통역 | 33 | 30.3 |
| | 번역 | 26 | 23.9 |
| | 통번역 | 41 | 37.6 |
| | 현재 통번역 실무 안함 | 9 | 8.3 |
| | 합계 | 109 | 100.0 |
| 통역유형 | 동시 | 2 | 6.1 |
| | 순차 | 2 | 6.1 |
| | 동시/순차 | 29 | 87.9 |
| | 합계 | 33 | 100.0 |
| 통역분야 | 경제, 산업 | 1 | 3.0 |
| | 외교, 안보 | 1 | 3.0 |
| | IT, 과학 | 1 | 3.0 |
|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 27 | 81.8 |
| | 법률 | 2 | 6.1 |
| | 문화예술 및 의약학 | 1 | 3.0 |
| | 합계 | 33 | 100.0 |
| 통번역사 통역유형 | 동시 | 3 | 7.3 |
| | 순차 | 5 | 12.2 |
| | 동시/순차 | 33 | 80.5 |
| | 합계 | 41 | 100.0 |
| 통번역사 통역분야 | 경제, 산업 | 10 | 24.4 |
| | IT, 과학 | 1 | 2.4 |
|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 27 | 65.9 |
| | 문학출판 | 1 | 2.4 |
| | 의학 제약 | 1 | 2.4 |
| | 문화 | 1 | 2.4 |
| | 합계 | 41 | 100.0 |
| 번역유형 | 문학 | 8 | 30.8 |
| | 비문학, 실용 | 13 | 50.0 |
| | 영상, 미디어 | 2 | 7.7 |
| | 문학 비문학 실용 | 1 | 3.8 |
| | 영상미디어 | 1 | 3.8 |
| | 건설실무번역 | 1 | 3.8 |
| | 문화 역사 문화 | 1 | 3.8 |
| | 합계 | 26 | 100.0 |
| 번역분야 | 인문, 사회 | 4 | 15.4 |
| | 경제, 경영 | 2 | 7.7 |
| | 과학, 기술 | 2 | 7.7 |

| | | | |
|--------------|-----------------|-------|-------|
| | 문화, 예술 | 7 | 26.9 |
|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 10 | 38.5 |
| | 소설작품 | 1 | 3.8 |
| | 합계 | 26 | 100.0 |
| 통번역사 번역유형 | 문학 | 2 | 5.0 |
| | 비문학, 실용 | 33 | 82.5 |
| | 영상, 미디어 | 2 | 5.0 |
| | 문학 실용 영상 | 1 | 2.5 |
| | 공문서 서적 | 1 | 2.5 |
| | 문화 역사 문학 실용 | 1 | 2.5 |
| 합계 | 40 | 100.0 | |
| 통번역사 번역분야 | 경제, 경영 | 5 | 12.2 |
| | 과학, 기술 | 2 | 4.9 |
| | 문화, 예술 | 2 | 4.9 |
|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음 | 31 | 75.6 |
| | 법률 | 1 | 2.4 |
| 합계 | 41 | 100.0 | |
| 활동경력 | 5년 미만 | 11 | 10.1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 | 45.9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4 | 22.0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1 | 10.1 |
| | 20년 이상 | 13 | 11.9 |
| | 합계 | 109 | 100.0 |
| 통번역 언어 | 한영 | 55 | 50.5 |
| | 한불 | 9 | 8.3 |
| | 한중 | 22 | 20.2 |
| | 한일 | 23 | 21.1 |
| | 합계 | 109 | 100.0 |
| 통번역 방향 | A(모국어)→B(제2언어) | 11 | 10.1 |
| | B(제2언어)→A(모국어) | 19 | 17.4 |
| | 양방향 균등함 | 79 | 72.5 |
| | 합계 | 109 | 100.0 |

<부록 3> 요인분석 결과

| | | |
|---------------------|------------------|----------|
| KMO와 Bartlett의 검정내용 | KMO 측도 | .906 |
| | 구형성 검정치(근사 카이제곱) | 2390.395 |
| | 유의 확률 | .000 |

| 변수 | 설문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 공통성 | 요인 분석 후 제거 문항 |
|----------|----------|--------|-------|-------|--------|--|
| 문화이해능력 | 23-13 문항 | .895 | | | .835 | 23-1 문항, 23-7문항, 23-8문항, 23-16문항 총4문항 |
| | 23-10 문항 | .880 | | | .826 | |
| | 23-5 문항 | .879 | | | .773 | |
| | 23-14 문항 | .849 | | | .735 | |
| | 23-6 문항 | .839 | | | .705 | |
| | 23-12 문항 | .832 | | | .811 | |
| | 23-15 문항 | .826 | | | .697 | |
| | 23-11 문항 | .816 | | | .784 | |
| | 23-4 문항 | .799 | | | .658 | |
| | 23-2 문항 | .787 | | | .642 | |
| | 23-3 문항 | .746 | | | .562 | |
| | 23-17 문항 | .732 | | | .660 | |
| | 23-20 문항 | .732 | | | .755 | |
| | 23-9 문항 | .724 | | | .700 | |
| 23-19 문항 | .679 | | | .678 | | |
| 23-18 문항 | .570 | | | .637 | | |
| 문화전이능력 | 25-9 문항 | | .848 | | .739 | 25-1 문항, 25-3 문항, 25-4 문항, 25-6 문항 총4문항 |
| | 25-5 문항 | | .836 | | .711 | |
| | 25-10 문항 | | .824 | | .709 | |
| | 25-8 문항 | | .759 | | .610 | |
| | 25-2 문항 | | .757 | | .576 | |
| | 25-7 문항 | | .628 | | .597 | |
| 문화중개능력 | 24-3 문항 | | | .878 | .792 | 24-1 문항, 24-2 문항 24-5 문항, 25-6 문항 24-7 문항, 25-8 문항, 24-9 문항, 25-10 문항 총8문항 |
| | 24-4 문항 | | | .802 | .679 | |
| 회전 | 아이젠 값 | 10.162 | 3.839 | 2.871 | | |

| | | | | |
|------------|-----------------|--------|--------|--------|
| 제공합 적재값 | (Eigen value) | | | |
| | 설명된 분산 비율(%) | 42.340 | 15.996 | 11.964 |
| | 설명된 분산의 누적 | 42.340 | 58.336 | 70.301 |

<부록 4> 신뢰도분석 결과

| 변수 | 설문 문항 |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 신뢰도 분석 후 제거 문항 |
|----------|----------|----------------------|------------------------------|
| 문화이해능력 | 23-13 문항 | .967 | * 제거문항 없음 |
| | 23-10 문항 | | |
| | 23-5 문항 | | |
| | 23-14 문항 | | |
| | 23-6 문항 | | |
| | 23-12 문항 | | |
| | 23-15 문항 | | |
| | 23-11 문항 | | |
| | 23-4 문항 | | |
| | 23-2 문항 | | |
| | 23-3 문항 | | |
| | 23-17 문항 | | |
| | 23-20 문항 | | |
| | 23-9 문항 | | |
| 23-19 문항 | | | |
| 23-18 문항 | | | |
| 문화전이능력 | 25-9 문항 | .826 | 25-5 문항, 25-10 문항 총2문항 |
| | 25-5 문항 | | |
| | 25-10 문항 | | |
| | 25-8 문항 | | |
| | 25-2 문항 | | |
| 25-7 문항 | | | |
| 문화중개능력 | 24-3 문항 | .620 | * 제거문항 없음 |
| | 24-4 문항 | | |

[Abstract]

**Cultural Competenc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Based on an Empirical Study**

Chang, Aili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a follow-up to the investigation "Cultural Competenc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Focusing on a Theoretical Approach." A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e construc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a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a pilot survey, a research tool was developed an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involving a total of 242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Through the surve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mponents which consist of cultural competence were verified: cultural understanding, cultural mediation, and cultural transfer abilities. The findings of the survey also show that these three abilities are interconnected, thus converging into a comprehensive concept of cultural competence. It was also found that varying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cultural competence emerge, depending on personal backgrounds of the subjects and particula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ctivities they are involved in.

▶ Key Words: cultural competence, survey, empirical study, translator, interpreter, statistical analysis

장애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한중전공 겸임교수

aili@ewha.ac.kr

관심분야: 문화능력, 통번역교육, 통번역의 사회적 기능, 문화 전이와 변용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